

5월의 기도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37편 4절>

1.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DCEM 성회안내

2015년 6월 3일, 4일에 독일의 베를린 Gemeinde auf dem Weg 교회에서 조용기 목사 초청 '영적각성과 회복의 날'(Days of discovery and of refreshment) 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야망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문경섭, 박예림, 박우택 원로장로,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목사, 안희순, 오현주, 원소선, 이준호, 이형춘, 최인철, 함석숙, Marcia Helena Silva, 010-****-1875,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강하게 보였으나 그도 평생을 파킨슨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 병으로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였어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한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만 평안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편히 쉬기를 원하지 기도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넘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유는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약하면 겸손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소유를 삼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깊은 은혜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함께 따릅니다. 그러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삶의 고난을 능히 이기고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순복음동경교회 특별축복성회 개최

일본 일천만구령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강사 초청



‘일본 일천만구령’의 전초기지인 순복음동경교회(담임목사 시가끼 시게마사)의 특별 축복성회가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1977년 조용기 목사의 동경부흥성회를 시작으로 ‘일본 일천만구령’을 목표로 한 우리 교회의 일본선교의 역사는 순복음동경교회를 중심으로 쓰여져 갔다. 이번 축복성회에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순복음동경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했던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김봉준, 신성남, 최용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지난 일본 선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다시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계기가 됐다. 이번 성회가 진행되는 기간은 일본의 식목일(4일)과 어린이날(5일)이 잇달아 있는 연휴이기에 가족 단위의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성회 마지막 날을 인도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꿈을 꾸 대로 이루어진다”며 지난 목회사역을 돌아볼 때 꿈을 꾸 대로 모두 이루어졌으며 “내가 이루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꿈이 나를 끌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아브람의 예를 들며 “아브람이 꿈을 가지고 믿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다. 꿈을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며 “이 세상에 기적은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

리는 성령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꿈에서, 믿음에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 일을 하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조용기 목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송을 함께 부르며 순복음동경교회의 부흥과 일본 일천만구령에 대한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이번 성회에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세상 사람들은 골든워크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더 값진 다이아몬드워크를 보내고 있다”며 순복음동경교회의 부흥과 발전, 비전완수를 위해 더욱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성회에는 순복음동북아일본총회 김유동 회장과 선교사들, 외무경조친목행사위원장 김종복 장로,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국내부회장 정충시 장로 등이 함께 참석해 일본 일천만구령과 순복음동경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이번 3일간 진행된 성회는 일본 일천만구령에 대한 순복음동경교회의 꿈과 비전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또한 일본인과 한국인 성도뿐만 아니라 최근 150여 명이 출석하고 있는 중국인 성도들도 일본 복음화 나아가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특히 4일 저녁 성회에서는 중국인 성도들이 특송을 불러 성회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번 성회 가운데 치유의 기적들도 일어났다. 진명해 집사는 한 달 전부터 심한 편두통에 시달려왔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를 받아봤지만 혈압이 불안정한 것 같으며 수많은 진통제를 처방 받았지만 잠시 통증 완화를 줄 뿐 특별한 차도가 없었다. 진 집사는 이번 성회에 참석해 조용기 목사의 신유기도를 사모하며 금식기도했다. 성회 당일에도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갔다 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진 성도는 성회 시작 전 조용기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었다. 진 집사는 “조용기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는 순간 나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전에 CT 2번, MRI 2번, 피검사만 4번을 받아도 병명조차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고침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환난 가운데 기도로 이겨내라는 말씀에 큰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등 성회 참석자들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꿈과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순복음동경교회는 2014년 11월 12일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취임 이후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행사와 바자회 등을 통하여 성도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교회로 한층 발돋움 하고 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물론자는 자기를 믿고, 무신론자는 환경과 자연의 섭리를 믿고, 유신론자는 잡신 우상을 믿고, 종교인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천으로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1.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불가항력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가 우리의 일생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몸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한없는 깊이와 높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는 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중략]...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2~25절)

(마 7:9-11)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2.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 짓눌려 사는 삶을 살아가는 안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4차원의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파괴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3차원을 감싸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은 4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 밑에 3차원의 물질세계는 변화 받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변화와 창조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4차원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바로 4차원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창조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성령이 불어와서 우리 영이 살아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보고 믿고 말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보고, 믿고, 말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4차원

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에 '에체르'라는 말이 있는데 '에체르'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로 '야차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창조한다"입니다. '에체르'라는 것은 "생각한다"고, '야차르'는 "창조한다"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생각한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면 창조가 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에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창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민족이 많은 창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각을 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양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생각대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창조적 명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뤄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믿고 말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결국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38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꿈꾸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꿈꾼 것은 받은 것으로 믿고 있으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바라보고 믿고 말씀을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 타이퉁 동부연합 부흥대성회 개최

"복음으로 타이퉁을 넘어 대만 그리고 중국을 변화시켜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복음과 십자가 능력 강조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남동쪽 400km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한 타이퉁에 또 한번 성령의 불길 이 치솟았다. 지난해 조용기 목사 초청 동부연합부흥대성회에 이어 지난달 4월 27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다시 한번 이번 성회에서 강한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초대교회 시절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재현됐다.

DCEM이 주관한 성회에는 타이퉁목회자연합회, 동부장로교선교연합회, 원주민선교연합회, 타이퉁침례교연합회 등 교파를 초월해 타이퉁지역 개신교 지도자들과 타이페이, 카오슝 등 대만 곳곳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대만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조용기 목사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귀 기울이고 듣더니 감화 감동되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치고 쫓겨나고 절름발이와 앉은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마리아성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 빌립처럼 나는 오늘 타이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오늘 절름발이와 앉은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병자들이 병상을 떠나게 되며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조용기 목사가 빌립이 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저주에서 해방시킨 예수님, 소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 전하며 "인생길은 누구나 초행이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한편 이날 성회는 신유의 기적이 잇달았다. 림지팅 성도는 "난 귀가 잘 안들린다. 내가 귀가 안들리

는 것은 우리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성회 중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신유기도를 들을 때는 완전히 들렸다. 그래서 내가 나왔음을 확신했다"고 고백했다.

이밖에도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를 통해 성회에 참석한 우리 교회 김원희 집사도 "늘 먹는 즉시 속이 좋지 못해 토하고 응급실로 가기 일쑤였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 완전히 치료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성회를 준비한 장신이 목사와 김경숙 선교사(생명천순복음교회)는 "주님이 타이퉁을 사랑하시는 종을 이렇게 많이 보내 주셨다. 특히 조용기 목사님이 지난해에 이어 방문하시고 이영훈 목사님도 함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타이퉁과 대만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했다.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 타이퉁

은 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다른 지역보다 문맹률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김경숙 선교사는 2008년부터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열어 아동사역을 시작했다. 지난해 기공예배에 이어 4월 27일에는 고품출 총재 조용기 목사와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등을 초청해 헌당예배를 드렸다.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는 이날 헌당예배 축사를 통해 "30년전 김경숙 선교사님을 만났었다. 처음 만난 능력 있는 여성이었다. 조목사님을 모시고 세계를 다니는데 대만은 김선교사님이 계셔서 걱정이 없다"고 전하며 생명천순복음교회 및 원주민 청소년센터 헌당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즉, 사랑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했다.